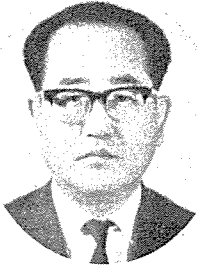


科学技術의 發展方向模索은

- 国家研究課題 선정등에



成 佐 慶 長 官

尊敬하는 副總理와 科学技術团体總聯合會長 그리고 貴賓 여러분!

오늘 第13回 科学의 날을 맞이하여 80年代 우리나라 科学技術의 進路와 發展 方向을 模索코저 하는 本세미나를 開催하게 된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며 本人이 이자리에서 祝辞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科学의 날이 13회를 거듭하는 동안 今年에 처음 試圖된 오늘의 세미나는 그동안 多數의 科学技術人士와 經濟社会 教育 言論分野 人士들이 参与하여 6個 主題에 對한 事前Workshop 結果를 中心으로 展開되는 것으로 本세미나의 討論 結果는 앞으로 우리나라 科学技術政策樹立에 크게 寄与할 것으로 믿읍니다.

그러나 처음 試圖되는 広範圍한 性格의 本세미나를 開催함에 있어 그 準備 期間이 짧았기 때문에 主題選擇의 不均衡이라든가 進行의 未熟等 여러분께서 보아 如意치 못한 點이 많을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의 經驗을 살려 보다 現實的이고 細部的인 問題點들을 主題로 하여 보다 많은 科学技術人士와 關聯分野의 人士가 参与하고 外国專門家까지 招請하여 더욱 알찬 科学技術政策 세미나를 發展, 繼承시켜나갈 計劃입니다.

예를 들면 現在 科学技術處에서 推進中에 있는 科学技術長期計劃의 樹立이나 国家研究課題의 選定, 그리고 国家研究開發体制의 整備와 研究管理 効率化方案, 나아가 科学技術의 国家的 寄与를 위한 技術輸出促進方案 等에 對하여 월삼 또는 세미나를 통한 많은 專門人士의 衆知를 모으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우리앞에 展開될 國際經濟的 与件은 순탄치 않은것으로 우리는 資源, 에너지, 輸出, 僱傭 人力等 모든 制約條件을 슬기롭게 克服하면서 技術集約的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促進하고 國民福祉 向上을 圖謀하여 나가

國家의 政策樹立에 크게 寄與

더욱 發展繼承시킬 計劃 -

야 합니다.

이러한 經濟社會의 目標을 達成함에 있어서 科學技術의 役割은 絶對的인 重要性을 갖는 것으로 이제는 科學技術發展을 國家의 次元에서 진지하게 追求하여야 할때가 왔다고 確信합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오늘의 세미나가 갖는 意義는 더한층 뚜렷한 것으로서 여러분께서는 이제까지 우리 科學 技術이 걸어온 자취와 오늘의 當面 課題에 對하여 진지한 論議와 批判을 하여 주시고 來日에 나아갈 方向에 對한 建設的인 意見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討論에 參加하신 여러분 뿐만 아니라, 聽衆여러분께서도 기탄없는 批判과 좋은 意見을 많이 提示하여 주시기를 거듭 付託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政府는 여러분들의 幅넓은 提議와 오늘의 意義있는 討論結果를 거울삼아 더욱 훌륭한 國家科學技術 政策을 樹立하고 政府, 科學技術界, 大學, 產業界가 協力하여 80年代 科學發展과 技術革新을 위하여 더욱 努力하여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세미나를 主擧하여 주신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와 그동안 本세미나 開催 以前에 어려운 與件을 介意치 않고 6個 主題別로 實情을 通하여 熱誠的인 討論을 主擧하여 주신 韓國科學技術研究所, 韓國科學院, 韓國電子技術研究所, 韓國綜合에너지研究所와 全國經濟人聯合會에 對하여 거듭 感謝의 말씀을 드리고 主題發表 및 討論에 參加하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感謝를 드립니다. 本세미나의 알찬 結果와 아울러 여러분의 健勝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感謝 합니다.

1980. 4. 21.

科學技術處長官 成 佐 慶